

남조선당국은 우리에게 대한 악랄한 비방중상으로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있는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조 국 평 화 통 일 위 원 회 서 기 국 진 상 공 개 장

최근 괴뢰패당이 우리를 비방 중상하는 모략소동에 더욱 악랄 하게 매달려 우리 인민과 온 겨 레의 지치는 격분을 불러일으키 고있다.

내외여론은 남조선당국이 북 을 자극하여 북남관계에 악영향 을 미치게 하고있다고 비난하면 서 우리를 표시하고있다.

괴뢰패당은 웅당한 비판의 목 소리를 새겨들고 속죄할 대신 도 적개 코 세우는 격으로 자기들은 비방중상을 한적이 없고 북이 저 들의 《대통령》을 《실명비난》 하고있다는니, 《초보적인 레의

우리의 대화평화노력에 대한 악랄한 비방 중상

북과 남은 이미 오래전에 서로 비방중상을 중지할데 대해 합의 하였으며 올해에 들어와 고위급 접촉을 통하여 비방중상을 하지 않을것을 다시금 온 민족앞에 확 약하였다.

그러나 력사적으로 남조선당국 은 우리에게 대해 비방중상을 그만 둔적이 한때도 없었으며 지금까지 우리를 졸권 악랄하게 헐뜯 어왔다.

리명박패당이 우리의 최고준엄 과 체제를 모독하는 특대형도발 사건을 련이어 일으켜 북남관계 를 수습할수 없는 파국에 몰아넣 었다는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 려진 사실이다.

박근혜 《정권》에 와서도 우 리에 대한 비방중상은 계속되 었다.

지난해에 집권하자마자 각종 도발과 모략소동으로 정세를 최 극단으로 치달아오르게 한 박근 혜패당은 올해에 들어와 새해벽 두부터 《북체제불안정》이니, 《도발》이니 하고 비방중상을 열 을 올렸었으며 우리의 력사적 인 신년사와 중대제안에 대해 무 력하고 부정하고 헐뜯는것으로 대답해나섰다.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장내 고 북남화해와 단합으로 자주통 일과 평화변명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갈데 대한 애국적호소가 담겨져 있는 력사적인 신년사와 그 실현 을 위한 국방위원회 중대제안 은 발표되자마자 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심사가 꼬일대로 꼬이 고 동족대결의식만이 짝 들어배 긴 괴뢰패당은 우리의 애국적호 소와 중대제안에 대해 《진정성 이 보이지 않는다.》느니, 《화전량면전술》이니, 《내부사정 에 의한것》이라느니 하고 처음 부터 생트집을 걸면서 교악하게 악담하였다.

특히 박근혜는 1월 18일 해외에 나가서까지 우리의 중대제안에 대해 《선전공세》니 뭐니 하고 제치면서 《북이 선전공세를 할 때일수록 대남도발 등에 철저지 대비하는 첩통같은 안보태세에

우리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러무니없는 비방 중상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야합하여 대규모의 북침핵전쟁연습과 탄도 미사일개발을 비롯한 각종 최선 무기개발에 퍼느이 되어 날뛰면 서도 우리의 자위적인 핵무력과 미사일무력에 대해서는 《도발》 이니, 《위반》이니, 《제재》니

마져 지쳐주지 않는다.》느니 하 면서 북남사이에 비방전을 야기 시킨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간 교하게 돌아대고있다.

괴뢰패당의 철면피한 꾀변이야 말로 우리에게 대한 또 하나의 비방 중상이며 적반하장의 극치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당국이 북남합의를 어기고 우리에게 대한 악랄한 비방중상에 매달려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 아가고있는 실상을 만천하에 까 밝혀 비방중상의 주범이 누구인 가를 내외에 정확히 알리기 위해 이 진상공개장을 발표한다.

만전을 기하라.》고 망발하였다.

통일부패거리들은 우리의 중대 제안을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비하하면서 자기들은 비방중상 을 하는것이 없으니 설명절부터 북이 비방중상을 어떻게 중지하 는가 보겠다는 식으로 오만불손 하게 떠났는가 하면 《새누리 당》 패거리들은 그 무슨 《새로 운 도발》을 준비하기 위한 《명분쌓기》니, 《말장난》이니 뭐 니 하는 험담들을 쏟아냈다.

당국의 부추김밑에 보수언론 들은 북의 제안이 《유화제스츄 어》라느니, 《위장평화공세》라느니, 《불안한 내부시선통리 기》라느니, 《남남갈등용》이 라느니 뭐니 하고 악랄하게 헐 뜯었다.

괴뢰군부호전파들은 더욱 도전 적으로 《비방중상중단과 군차원 의 대북심리전은 전혀 별개의 사 안》, 《군차원의 대북심리전능 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본격추진 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올해부 러 전진과 평지가 우리 공화국 전역에 라디오와 TV전파를 동시 에 송출할수 있는 최신기동중계 장비와 《K-9》용 소형 신형베라 살포탄을 개발할것이라고 공공 언히 떠들어냈다.

그런가하면 외교부와 통일부것 들은 그들대로 《비방중상중지 문제와 북인권문제는 별개의 문 제》라고 하면서 반공화국심리 모략선전과 《인권》소동에 더욱 매달리려는 흥심을 포괄적으 로 드러내놓았다.

남조선의 각계층과 량심적인 언론, 전문가들은 《북이 비방중 상을 중단하자고 했는데 그 제안 을 거부하면 정부가 앞으로 비 방중상을 하겠다는것이냐. 과연 정부가 진정성이 있는지 묻고싶 다.》, 《북의 대화요구를 《위장평화》라고 몰아붙이는건 적절 치 않다.》는 등으로 당국의 처 사를 강력히 비난규탄해나섰다.

오죽하였으면 외신들까지 남 조선당국에 대해 《북남관계개 선분위기를 차단하는데 주력하 는 모습》이라고 눈살을 찌푸렸 겠는가.

뭐니 하며 입에 게거품을 물고 지껄어대고있다.

국방부 장관 김관진은 2월 26일 《최근 북은 핵과 미사일개 발은 물론 재래식무기를 지속적 으로 중장화고있다.》느니, 《불 안정한 체제와 서부른 오만에 따

라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하 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느니,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게 응징 할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있다.》느니 뭐니 하고 제 처했다.

우리 군대가 정상적인 로케트 발사훈련을 진행하자 남조선의 대결광신자들은 큰일이나 난듯 이 법석 떠들면서 《의도된 도 발》이니, 《이중적행태》니, 《유엔안보리사회 결의위반》이라 느니 뭐니 하고 고아냈으며 유엔 에 제소하는 추태까지 벌리었다.

국방부패거리들은 련이어 대변 인을 내세워 《탄도미사일확산》 이니, 《국제사회의 우려》니 하고 결고들다 못해 《국제항행정 서와 민간인안전에도 심대한 위 협을 주는 도발적행위》라느니, 《탄도미사일전파가 있다.》느 니, 《즉각 중단》이니 뭐니 하 며 소란을 피웠다.

괴뢰패당은 특히 우리의 핵문 제를 악랄하게 결고들고있으며 그에 가장 악질적으로 몰아대는 것이 바로 박근혜이다.

박근혜는 2월 7일 《북은 어 전히 핵개발과 경제개발병진로선 을 고수하고있고 불안정한 상황 도 계속되고있다.》느니, 《최근 에 갑자기 평화공세를 펼치는것 처럼 보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긴 장을 늦추서는 안된다.》느니 하 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3월 6일에는 그 무슨 축사라 는 데서 《남북간에 경제협력을 가 로막고있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바로 북의 핵》이라고 하면서 《핵무력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 한다는것은 불가능하다.》 느니, 《북이 어떠한 형태로든 도발할수 없게 강력한 대비태세 를 유지하라.》느니, 《단호하게 응징하라.》느니 뭐니 하며 우리 의 병진로선을 헐뜯고 대결을 고 취하는 비방선동을 하였다.

특히 박근혜는 3월 22일 네테 를란드에서 진행된 제3차 《핵안 전수뇌자회의》에 참가하여 《북 핵문제제 해결하는것이 핵무기뿐 이 는 세상을 만드는게 꼭 필요하 다.》, 《북에 핵을 포기하라는 데 메제를 좀 더 확고하게 보낼 필요가 있다.》는 도발적인 꾀변 을 늘어놓았다.

지어 《냉면에 많은 핵시설이 집중되어있는 조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체르노빌핵발전소보다 더 큰 핵재앙으로 이어질수도 있 다.》, 《북의 핵은 레토에 사 용될수도 있고 주변국 핵무장정 쟁을 야기시킬수 있다.》, 《심 각한 우리의 대상이므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무식하기 짝 이 없는 허튼 나발을 불어대어 세상사람들의 격분과 조소를 자 아냈다.

그는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국 제회의에 참가한 여러 나라 수뇌 자들을 찾아가니며 《북의 핵개 발과 경제건설의 병진정책은 불 가능하다.》는 판에 박은 말을 앵무새처럼 외우면서 악랄하게 우리의 병진로선을 쏟아냈다.

외교부패거리들은 박근혜의 말 을 그대로 되받아넘기면서 《북 은 도저히 광립될수 없는 핵, 경 제병진로선을 즉각 포기하라.》고 제쳐냈는가 하면 통일부 장 관 류길재는 《오늘날 북의 경 제난은 1960년대에 뿌리깊게 내 세운 경제국방병진로선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악담까지 내뻘었다.

괴뢰패당은 《천안》호사건 과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대한 비 방중상에 계속 악랄하게 매달리 고있다.

3월 25일 국방부 대변인은 《천 안》호사건 4년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천안〉 합격격사건은 복잡상함에 의한 어뢰공격으로 발생한 명백한 도발사건》, 《또 다시 북이 도발한다면 반드시 현 장에서 작전을 종결짓겠다는 결 언한 의지와 강도 높은 대비태세 를 구축하고있다.》고 떠벌이면 서 이미 거덜이 날대로 난 《북소 행설》을 다시 꺼내들었다.

특히 군부호전파들은 《〈천 안〉 합격격사건상기기간》이라 는것을 설정해놓고 조선서해 5개 섬의 열점수역에서 그 무슨 《위 령탐참배》와 《해상위령제》라 는것을 벌려놓았는가 하면 각급 군부대들에서 그 무슨 《보복의 지》를 고취하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 《해양수호결의대회》라는 광대국을 벌리었다.

괴뢰합동참모본부 의장 최윤 회는 《북이 도발하면 단호하고 다 가져없이 응징할것》이라는 는, 《북의 도발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 하라.》느니, 《북의 도발야욕은 변하지 않았다.》느니 뭐니 하고 핑기를 부렸다.

괴뢰패당은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억지꾀변 으로 저들의 군사적도발을 정당 화하고있다.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극악한 비방 중상

남조선당국의 비방중상은 우리 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악담에서 최절정에 이르고있다.

박근혜는 1월 6일 신년기자회 견이라는데서 그 무슨 《통일 시대기반구축》이니 뭐니 하면서 사 감히 《체제통일》의 불순 한 정치적흥심을 내비쳤을뿐이 니라 1월 14일에는 외국기자들 앞에서 《북은 예측불가능한 나 라다.》, 《북의 불확실성이 더 커 졌다.》 등의 망발을 거리낌없이 늘어놓았다.

1월 20일 스위스대통령을 만 나서는 《북이 변화할수밖에 없 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도끼로 100번까지 찍었는데 안넘어간 나무가 101번째에 드 니어 쓰러지게 될 때 100번의 노 력은 무의미한것 이 아니다.》, 《101번째의 노력이 꼭 이뤄질것 으로 본다.》고 지껄이면서 《자 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망상 을 그대로 드러냈다.

박근혜는 기자회견, 대국민담 화, 강연, 해외행각 등 여러 기 회에 《북주민들이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고있다.》느니, 《탈 북자들이 목숨걸고 넘어오고있 다.》느니 하고 입버릇처럼 외워 대는가 하면 반공화국인권소동을 위해 대남도발음직임을 강화하러 고 하는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악담들을 하였다.

보수언론들과 독설가들은 우리 의 체육증시정책과 체육열풍에 대해서도 시비하면서 《권력핵심 부로 쏠리는 인민들의 불안한 시 촌과 관심을 스스로로 분산시키 고 침체된 사회분위기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의도.》라고 헐뜯고 는것을 지어 설명철을 제기하러 평 양과 여러 지방도시들에서 축포 를 쏜데 대해서까지 《내부분위 기를 다잡기 위한다.》이니 뭐니 하고 뻥방질을 하였다.

특히 박근혜는 지난 3월 도이 칠란드행각에서 《경제난속에 부 모를 잃은 아이들이 거리에 방 전되어있고 추위속에서 배고픔을 견 디어내고있다.》느니 뭐니 하 고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는 망

새 해벽 두부터 《격멸》과 《웅징》을 부르짖으며 포사격훈 련을 미친듯이 감행한 괴뢰패당 은 북침핵전쟁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우리와 내외여론의 한결같은 요구를 무릅쓰고 방대한 미 국의 핵전쟁장비들과 침략무력을 을 3월말부터 세계최대규모의 《키 리졸보》,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3월말과 4월에 들어와서는 《평양점령》을 목표로 하는 대 규모연합상륙훈련과 공화국의 전 지역에 대한 공중타격을 노린 련 합공중전전쟁연습인 《맥스 쉐더》를 2중3중으로 벌려놓아 정세를 전쟁점점으로 몰아가고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전쟁연습책 등에 대해 《방어적》이니, 《년 레적》이니, 그 누구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니 뭐니 하 면서 정당화하는 꾀변을 늘어놓 고있다.

괴뢰패당은 최근 열도당토않 은 무인기사건까지 조작하여 반 공화국모략선전과 비방중상에 더 욱 광분하고있다.

국방부는 4월 11일 무인기사건 과 관련한 중간조사결과라는데서 결정적근거는 찾지 못하였다는것 을 인정하면서 또 무작정 《북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기어코 우리와 련관시켜 제2의 《천안》호사건을 날조해낼 흥심 을 드러냈다.

이러한 사실들은 남조선당국 의 비방중상이 얼마나 무분별한 지경에 이르고있는가를 보여주 고있다.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극악한 비방 중상

남조선당국의 비방중상은 우리 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악담에서 최절정에 이르고있다.

3월 11일 괴뢰정보원선하 《안 보전략연구소》 소장 유성숙이라 는자는 《새누리당》소속 의원 들의 모임인 《통일경제교실》에 서한 특강이라는데서 우리의 최고준엄을 악랄하게 헐뜯으며사 입에 담지 못할 악담들을 하다 못해 우리 체제에 대해 《고장 난 자동차》니, 《굶빈사재가능 성》이니 하고 험담하였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이라는 자는 3월 17일 《북은 불량국가 라는 지탄과 함께 그림을 자주초 할것》이라느니, 《군사도발로 북 이 손에 넣을것은 아무것도 없 다.》느니 뭐니 하고 제쳤는가 하면 그에 앞서 3월 13일에는 우 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결과 를 놓고 《북이 체제공고화 등을 위해 대남도발음직임을 강화하러 고 하는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악담들을 하였다.

보수언론들과 독설가들은 우리 의 체육증시정책과 체육열풍에 대해서도 시비하면서 《권력핵심 부로 쏠리는 인민들의 불안한 시 촌과 관심을 스스로로 분산시키 고 침체된 사회분위기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의도.》라고 헐뜯고 는것을 지어 설명철을 제기하러 평 양과 여러 지방도시들에서 축포 를 쏜데 대해서까지 《내부분위 기를 다잡기 위한다.》이니 뭐니 하고 뻥방질을 하였다.

특히 《데일리NK》와 《조선 일보》를 비롯한 악질보수언론들 은 우리 최고지도부의 육아원과 애육원에 대한 현지도와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감히 결 고들며 우리의 최고준엄을 악랄 하게 헐뜯는 참을수 없는 망동짓 을 하였다.

윤병세, 김관진, 류길재를 비 롯한 괴뢰우두머리들도 저마름 나서서 《급변사태설》과 《3. 4월위기설》 등을 내들리며 여론 을 오도하는 망발을 제치고있다.

3월 12일 외교부 장관 윤병세 는 특별학술회의라는데서 《핵 무기에 매달린 북은 칠칠같은 어 둠에 휩싸여있다.》고 악담하면 서 《대북제재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있다.》, 《북의 돈줄 이 상당히 차단되고있다.》고 제 쳤는가 하면 4월 10일에는 그 무 는 《불안정과 류동성》이니 뭐니 하면서 《해프기직전이 가장

너절한 인간쓰레기들을 동원한 추악한 비방 중상

남조선당국은 우리에게 대한 비 방중상에 너절한 인간쓰레기들까 지 총동원하고있다.

정보원을 비롯한 정량모략기관 들은 공화국에서 죄를 지었거나 부모처자를 버리고 3국으로 도주 한자들을 남조선으로 끌고가서 는 몇푼의 돈을 쥐여주면서 우 리에 대한 악선전에 내몰고있을 뿐아니라 국제무대에까지 끌고다 니며 그 무슨 《증언자》로 내세 워 우리를 헐뜯는 비방중상에 써 먹고있다.

통일부패거리들은 인간쓰레기 들인 《탈북자》들의 《증언》에 기초하여 우리 공화국의 현실 을 외목날조한 만화를 3월초 서 울에서 전시하는 놀음을 벌렸는 가 하면 남조선 20여개 대학들에 인간쓰레기들을 끌고다니면서 간 담화, 사진전시회 등을 벌려놓고 우리를 비방하고 찍어바친 저들 의 체제를 선전하였다.

특히 괴뢰패당은 사람값에도 들지 못할 인간추돌들을 유엔에 서 반공화국인권보고서를 조작 하는데 《증언자》로 내세우는가 하면 미국, 영국, 스위스 등에 끌고다니면서 국회와 각종 국제 토론회들에서 우리 체제를 악랄 하게 헐뜯게 하고 이자들이 써붙 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를 중 상모독하는 모략영화와 책자까지 만들어 내들리는 비렬한 놀음을 벌리고있다.

통일부 장관 류길재는 얼마전 서울에 주재하고있는 여러 나라 대사들에게 인간쓰레기들을 세뇌 교육하고 반공화국악선전의 돌격 대로 양성하는 《하나련》을 보 여주면서 국제적으로 반공화국여 론을 조성해보려고 책동하였다.

괴뢰패당은 인간쓰레기들을 내 세워 우리측지역에 대한 베라살 포놀음도 더욱 악랄하게 벌리고 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남조선강원 도 철원과 경기도 련천, 파주 등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우리의 체제 와 존엄을 헐뜯는 수습만장의 베 라를 살포하였는데 그것들은 전 계으로 당국의 비호속에 감행되 었다.

3월 24일에는 군부의 주도하에 백령도와 대연평도를 비롯한 조 선서해 5개 섬일대에서 인간쓰 레기들이 베라살포놀음을 벌리 었다.

베라살포문제자 물의를 일으 키자 남조선당국은 《민간단체

어두운 순간이듯이 지금의 불확 실성은 우리가 이루고져 하는 목 표가 다가오고있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있는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녀두리를 내뻘었다.

지어 통일부 장관 류길재는 3월 5일 강연에서 《앞으로 북이 약속을 지키지 않다면 국물도 없다.》는 치사하고 역겨운 망발 을 우리를 참을수 없이 우롱, 모 독하였다.

남조선당국과 국유보수패거 리들, 악질보수언론들의 추악 한 망상과 악랄한 비방중상책동 으로 말미암아 올해에 북남관계 는 새로운 첫 출발도 제대로 해 보지 못한채 파란의 구렁텅이로 굴러떨어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 었다.

너절한 인간쓰레기들을 동원한 추악한 비방 중상

들의 전단살포를 법적으로 규제 할수 있는 근거가 없다.》, 《표 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법적 근거없이 제한할수 없다.》는 꾀 변으로 정당화, 합리화하였다.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언론 등과 진보적인사들, 단체들을 그 도록 가혹하게 탄압하면서도 보 수언론들과 인간쓰레기들의 반공 화국모략선전에 대해서는 《표현 의 자유》니 뭐니 하고 변호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파렴치한 망 발인가.

제반 사실은 비방중상을 하지 않기로 한 북남합의를 위반한 장 본인인 다름아닌 남조선당국이라 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현실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4월 7일 뻘뻘스럽게도 《남북이 합의한 비방과 도발중 지에 대한 약속을 북이 깨고있 다.》고 횡설수설하면서 《내부 의 불안을 막아보려는것》이니 뭐니 하고 악담하였다.

이것은 박근혜야말로 비방중상 의 왕조이고 주범이라는것을 똑 똑히 보여준다.

우리 인민들이 박근혜를 그토 록 격분에 넘쳐 규탄, 조소하고 있는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괴뢰패당이 우리의 존엄 과 체제를 심히 모독하는데 대하 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망발의 대 가를 단단히 치르게 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에게 대한 악 략한 비방중상으로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있는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에게 대한 비 방중상으로 얻을것이란 저들의 파멸과 북남관계의 파국뿐이라 는것을 똑바로 알고 임부리를 조 심해야 할것이다.

예로부터 화는 입으로 나오고 제 대접은 제가 받는다고 하였다.

우리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비렬 한 반공화국비방중상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그에 단호 히 대처해나갈것이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거 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체제와 존엄을 헐뜯는 비방중상에 계속 매달린 다면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속에 가장 수치스러운 운명을 면치 못 할것이다.

주제103(2014)년 4월 13일
평 양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유 럽을 행각하면서 내놓은 이 른바 《통일구상》이라는것이 나오자마자 각계의 비난 과 조소를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통일뉴 스》에는 《속빈강정같은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이 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신문은 이에서 박근혜가 유 럽을 행각하면서 그 무슨 《통일구상》을 발표함에 대 해 전하고나서 다음과 같이 썼다.

《박근혜는 이 제안에 《북이 핵을 버리는 결단 을 한다면》이란 전제를 달 았다. 그것은 결국 북이 미 국앞에 백기를 들고나오면만 도와주겠다는 말과 같은것이 며 결국 스스로 미국의 심부름군에 불과하다는것을 밝힌 결과가 되고말았다.

…박근혜는 자기가 발표한 《한반도평화통일을 위한 구 상》의 성사를 진정으로 바 람다면 던여놓고 북의 핵포 기를 전제로 내걸것이 아니

라 먼저 미국을 설득하여 주 〈한〉 미군을 내보내야 할것 이다.》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또 이렇게 평하였다.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비핵화〉나 〈신위가 쌓여 감에 따라〉 등 어떤 제안들 은 조건을 달았다. 이것은 현 단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것이 별로 없다는 소 리처럼 들린다. … 통일은 대화로부터 시작한 다. 〈대화없는 구상〉은 공 허한 상상에 지나지 않기때 문이다.》

남조선의 야당을 비롯 한 각계에서도 현 집권자 의 《통일구상》을 《빈약 한 통일구상》, 《설득력없 는 문제해결방법》이라고 비 난하였다.

너무나도 웅당한 평가

이다. 남조선집권자가 유 럽을 행각하면서 내놓은 《통일 구상》리면에는 북남대결 과 전쟁, 분열을 고취하는 《흡수통일》의 흥세가 짙 려있다.

남조선집권자는 도이칠란 드를 행각하면서 《통일의 모델》로 추어올리고 무슨 《경험》을 배운다고 수다 를 떨다 못해 그 무슨 《통 일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입방아질을 하였다.

도이칠란드의 통일은 철두 철미 일방이 타방의 사상과 제도를 집어삼킨 《흡수통 일》이다.

결국 도이칠란드에서 한 박근혜의 언동은 공화국의 존엄높은 제도를 해치고 이 른바 《자유민주주의체제하 의 통일》을 이루겠다는 어 리석은 망상의 발로이다.

현 집권자가 《한반도평 화통일구상》을 공언하면 서 열도당토않게 《북핵포 기》를 전제조건으로 내세 운것도 공화국의 핵억제력 을 제거하고 북침야망을 실 현해보려는데 음흉한 목적 이 있다.

더우기 남조선집권자는 유 럽을 행각하면서 《경제난》이니, 《배고픔》이니 하고

떠들며 그 무슨 《산도와 유 아영양지원》라령을 늘어놓 음으로써 공화국을 헐뜯고 심히 중상모독하였다.

상대방을 터무니없이 비방 중상하면서 어떻게 북남사이 의 신뢰를 쌓고 평화통일에 로 나갈수 있겠는가.

남조선의 어느 한 언론이 현 집권자의 《〈통일구상〉 이후 북남관계가 오히려 더 협약》해졌다고 비꼰것이 결 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북남사이에는 이미 세상이 알고있는것처럼 통일의 원칙 도 세우져있고 리정표도 세우 되어있으며 그 실현을 위 한 구체적인 방도도 마련돼 있다. 그것이 바로 조국통일 3대원칙과 우리 민족기리를 핵으로 하는 력사적인 북남 공동선언이다.

북과 남이 합의한 통일의 원칙과 공동선언리행에 신의 도 있고 북남관계개선에 있 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 족의 통일변명으로 있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통 일을 론하고 북남관계개선 을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쌍 방의 최고수뇌분들이 합의하 고 온 겨레와 세계가 지지찬 동한 북남공동선언들을 성실 히 리행하려는 자세와 립장 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없는 《통일구상》이나 《제안》은 아무런 결 과도 낼수 없는 공허한 꾀 리, 알을 못 낳는 암탉의 울 음소리로 뿔뿔이다.

본신기자 주 광 일

조선반도긴장을 고조시키는 공중전쟁연습을 규탄한다

남 조선의 민 권련대 성명 발표

남조선의 민주민생평화 통일주권련대(민권련대)가 10일 성명을 발표하여 군사 적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 남조선련합공중전쟁연습을 규탄하였다.

성명은 11일부터 25일까 지 남조선 전지역 상공에서 력대 최대규모의 《맥스 쉐더》훈련이 강행되는 데 대해 언급하였다.

얼마전에는 미국과 남조선해방대가 경 상북도 포항일대에서 《평양점령》을 노린 《쌍룡》련합상륙훈 련을 감행하였다고 폭 로하였다.

이 모든것은 남북관 계를 파란시키고 조 선반도긴장을 고조시키 는 포괄적인 행위라고 단죄하였다.

100여대의 비행기를

실전을 노린 공격연습이라 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주 장하였다.

력대 최대규모의 전쟁연습 을 강행하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에 과연 조선반도평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고 성명 은 지적하였다.

본신기자



미국남조선련합공중전쟁연습중단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